

#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 '맞손'

### 전주시·예수병원·전주시의사회·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업무협약

전주시가 지역 의료기관·단체와 손을 맞잡고 촘촘한 통합돌봄 안전망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변재관 통합돌봄건설담당장, 김철승 예수병원장김종구 전주시사회회장, 이홍락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통합돌봄 2021,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예수병원과 전주시의사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주거, 복지·돌봄, 영양, 문화·여가, 일자리 창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예수병원은 올해 통합돌봄 사업이 덕진구까지 확대되면

서 새로 참여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예수병원은 덕진구 16개 동에서, 전주시의사회는 노송동 등 동산구 9개 동에서,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평화동 등 10개 동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세 기관은 돌봄 대상자를 고혈압이나 당뇨의 증증도에 따라 ▲1차 안전망(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2차 안전망(일반 만성질환자 관리) ▲3차 안전망(중증 만성질환자 관리) ▲4차 안전망(마을 주치의 집중관리)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정방문진료 ▲이동검진 ▲만성질환관리교실 ▲웃음치료교실 ▲건강짜깁기 나들이 ▲늘 푸른 건강학교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뜻을 함께 해 주신 예수병원과 전주시의사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3.1운동 독립정신 계승 전주시가 3.1운동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참배행사를 했다. 전주시는 1일 송천동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 참배행사를 가졌다.



전주시는 지난 2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변재관 통합돌봄건설담당장, 김철승 예수병원장김종구 전주시사회회장, 이홍락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통합돌봄 2021,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3월까지 1만4000명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 전주시, 요양시설·정신요양·재활시설·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 대상

전주시가 지난달 26일 정신재활시설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전주시보건소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로 구성된 방문접종팀은 이날 중노송동 소재 마을건강회복을 등 재활시설 3개소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코로나19 백신 방문 접종을 했다.

방문접종팀은 예방접종에 대한 금기사항을 안내하고 충분한 사전 예진의 시간을 가진 뒤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에서 백신 주사를 놓았다.

이와 함께 아나필락시스(심각한 알레르기) 등 백신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해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EMS(응급의료서비스) 구급차를 배치했으며, 이상반응 발생 시 전북대학교병원과 후송병원, 대지인병원, 전주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갖춘 가운데 무사히 첫 접종을 마쳤다.

시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3월 10일까지 8일간 26개 요양시설과 정신요양·재활시설의 851명(입소자 177명, 종사자 674명)을 대상으로 1차 방문접종을 실시한다. 요양병원 입원자와 종사자 4,000여 명은 오는 3월 10일까지 자체접종을 진행한다.

고위험 의료기관(병원급) 보건의료인 8,345명의 경우 3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자체접종을 하고, 전북대학교병원 직원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 종사자 190명도 3월 말까지 자체접종을 완료한다. 119 구급대원과 방역, 역학조사, 검사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370여 명은 22일부터 3월 말까지 화산체육관 등 접종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

시는 3월 말까지 총 1만4,000여 명에게 1차 접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를 제외하고(화이자 백신) 모두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이 접종된다. 2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에 따라 8주 뒤에 시작될 예정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시민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19~64세 성인, 4분기에는 미접종자와 2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한다. 11월까지 18세 이상 54만8,000명에 백신을 투여하는 게 목표다.

이와 관련 2차에 걸쳐 접종을 모두 마친 시민은 정부24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집단면역 형성 등 일상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 덕진공원에 아동·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 '야호 맘껏숲'·'야호 맘껏하우스'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의 대표 휴식공간인 덕진공원에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덕진공원 내 구 수영장 부지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학습·체험·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야호 맘껏숲'과 '야호 맘껏하우스'를 조성하고, 3월 2일부터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야호 맘껏숲과 야호 맘껏하우스는 지난 2018년 전주시와 유니세프, 전주시실물관리공단이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시가 10억7,000만원, 유니세프가 2억 원을 투입해 만들었다.

먼저 야호 맘껏숲은 4,684㎡(1,416평) 규모에 아동과 청소년이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청소년 공간으로 슬라이딩 가벽과 황토마당과 맘껏아지트가,

아동 공간으로는 모래놀이터와 물던빙, 미끄럼틀이 조성됐다. 또 은행나무 플랫폼과 대나무숲, 트리하우스도 생겼다.

야호 맘껏하우스의 경우 연면적 178.52㎡(54평) 규모에 망카페, 휴식공간, 무지개다리, 수유실, 활동가 사무실 등의 시설이 조성돼 아동들의 실내 놀이 공간이자 보호자의 대기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곳에 놀이활동가를 배치해 기본·계절별·주말 가족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키로 했다. 놀이활동가는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안전관리와 시설물 점검도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꿈꾸는 트리하우스 ▲두개비와 함께 모래놀이 ▲꼬불꼬불 숨바꼭질 ▲오색천단 신기한 비눗방울 ▲씩씩씩씩 분필놀이 ▲내맘대로 목공놀이 ▲열기설기 숲

밭놀이 ▲새싹이 움트는 봄의 소리 ▲엄마아빠와 함께 만드는 폼피라 토요일 ▲엄마아빠와 함께 노니깐 더 좋아 일요일 등이 추진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놀이별로 현장신청(선착순)하거나 야호놀이전주 홈페이지([www.jonju.go.kr/yaho](http://www.jonju.go.kr/yah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야호 맘껏숲과 맘껏하우스가 아동의 놀 권리를 온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심 곳곳에서 '야호'를 외치며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를 통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전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놀이터 정책과 야호 5대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호크마작은도서관, 초등학생 프로그램 운영

화산동 주민의 사랑방이자 아동들의 책놀이터 역할을 해왔던 호크마작은도서관(관장 김효진)에서 청소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호크마작은도

서관은 최근 삼성꿈장학재단의 배움터교육지원사업 중 주제별교육복지사업 분야에 최종 선정돼 3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초등학생들을 위한 기초학습프로그램(국어, 수학)을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프로그램인 '초등 첫걸음' 후 step by step을 주 4회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들은 호크마작은도서관(070-4042-5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http://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mailto:jjvs@hanmail.net)